

2013.7

2

4

DESIGN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꾼다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2분기 실적 및 3분기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www.designdb.com

본 보고서는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체감경기를 조사하여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경영활동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동향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연구자 고유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www.designdb.com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산업연구원 김홍석
02-3299-3056
thomaskim@kiet.re.kr

편집디자인
유가영 010-4817-2268 gy7697@gmail.com

Contents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2013년 2/4분기 현황 및 3/4분기 전망)	03
요약	05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07
1.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07
2.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09
3. 전문디자인기업 영업현황	12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15
II. 2013년 2/4분기 현황 및 3/4분기 전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15
1. 디자인 업계 이슈	15
2. 디자인 정책 이슈	17
III. 부록1	20
0. 영국 디자인산업의 성장 비결	20
IV. 부록2	22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22
2. 2013년 2/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23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25
4. 산업일반 통계자료	27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2013년 2/4분기 현황 및 3/4분기 전망

1. 2013년 2/4분기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현상 그리고 중국경제 성장 둔화 조짐 등 경기 회복에 대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디자인산업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분기 부터 3분기 연속 경기 전망이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디자인 수요부분의 경기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제조업 등의 경기회복 움직임이 디자인산업의 경기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기준선인 **100p가 넘는 전망지수를 보이는 등 디자인업계가 어느 정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3/4분기 디자인경기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2. 국내 경제

정부와 각 기관의 올해 경제전망에 보면, 이구동성으로 경제성장률에서의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대외환경 불확실성 상존과 내수경기 회복 부진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낙관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추경예산 편성 등 신정부 출범효과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기업경기전망이 3/4분기에는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것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의 업황BSI는 5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6월 79로 전월대비 1p 하락한데 이어 7월 업황 전망BSI도 78로 전월전망 조사치 대비 4p 하락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전망치는 92로 전월 전망치 대비 2p 하락하고 비제조업은 69로 전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4분기 대비 30p 상승한 99p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3/4분기에는 다시 97p로 하락함으로써 연속 8분기 동안 0% 성장률을 기록한 국내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반기에 비해 상승할 것이라는 정부와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의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성장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현상 그리고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이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들에게는 소비와 투자부진으로 인해 내수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전망 조사에서 2/4분기와 마찬가지로 3/4분기에도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은 각각 기준선인 100이 넘는 수준에서 소폭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소폭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등 기업경기에서의 양극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조사에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모두 어려운 이유로 여전히 내수부진이 각각 24.9%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부 정책과제 조사에서 경기활성화 (수요진작)를 들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59.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내수부진이 최근 기업경영의 큰 어려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상반기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수출경기 전망의 경우 3/4분기에 103p로 전분기에 비해 8p 하락하였지만 다행히 기준선 위에서의 하락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소 낙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특히 일본의 엔저현상이 다시 나타남에 따라 하반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수출업종에서 엔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아 여전히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실정이다.

3. 디자인 경기

전문디자인업의 **2/4분기 경기실적지수(D-BSI)는 74.2p**로 전분기 59.4p에 비해 14.8p 상승하고, 전년 동분기 62.5p에 비해서도 11.7p 상승하여 **201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더 나아가 1/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디자인 경기회복 지속세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통계청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를 보면, 매년 전년 4/4분기에 대폭 상승한 후 1/4분기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하였고, 올해도 역시 2012년 4/4분기 경산지수기준 118.9 이후 2013년 1/4분기에는 94.2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3월에 130.4로 다시 크게 상승하고 4월과 5월에도 3월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각각 106.7과 117.2로 기준선인 100이 넘는 지수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4/4분기의 생산실적 상승이 디자인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계절적인 현상이 아니고 생산실적 호조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실제 이번 디자인경기조사에서 **2/4분기 경기호전 이유로 기업들이 계절적인 요인이 아닌 수주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와 디자인 경기실적지수의 2/4분기 업종별 경기실적지수는 디자인 모든 업종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던 **제품디자인업이 83.5p로 전분기 56.6p에 비해 26.9p 상승함으로써 가장 높은 상승실적**으로 보였다. 또한 전분기에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시각디자인업도 71.8p로 전분기 59.3p에 비해 12.5p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충청권만 49.8p로 전분기에 비해 3.9p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권역의 경기실적이 상승하고 특히 대경권과 호남권, 동남권(부울경권) 순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 이들 권역의 제조업 경기회복이 디자인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업계의 경기실적 상승에 따라 디자인 경영실적지수도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 모두 같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매출 증대와 채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경기회복의 효과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전문디자인업의 **3/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103.9p**로 1/4분기의 103.7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전년 동분기 79.7p에 비해서는 24.2p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1/4분기에 하락하였다가 다시 2/4분기에 경기전망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3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2/4분기와 마찬가지로 **수주증가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 신사업 발굴계획/신규개발과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증가가 각각 23.4%와 22.1%로 나타나 주로 수요요인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품디자인업만 127.0p로 전분기 109.6p와 전년 동분기 70.0p에 비해 높은 상승을 보여 디자인 업체들이 제조업의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시각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은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하락하였고, 특히 기타전문디자인업의 하락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들이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인테리어(68.6p)와 기타 전문디자인업(63.2p)의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대경권이 수주감소에 대해 가장 높은 우려를 나타내 지역적으로 디자인업의 분야에 따라 경기전망에 있어서 명암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전문디자인업체 영업현황

기업이나 공공부문 지원형 산업, 즉 B2B산업으로서 디자인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디자인업체의 용역과제 수주 구조분석은 디자인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전문디자인업체의 용역과제 수주 구조 조사 결과 주 거래 대상은 중소기업 39.4%, 공공기관 31.1%로 두 부문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디자인투자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업체 수요구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디자인산업 성장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은 제품디자인업(54.3%), 시각디자인업(40.9%), 기타 전문디자인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디자인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영세할수록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기업역량이 디자인 수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디자인 분야를 불문하고 디자인업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디자인투자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거래대상의 매출 비중은 50% 이상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 이상 ~ 50% 미만이 18.7%로 그 뒤를 따랐다. 주거래대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의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인테리어와 제품이 평균 이상을 보였지만 나머지 부분도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여 주거래 대상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디자인업계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역계약수행방식은 90% 이상이 '자체 수행'이었고 재하청이나 프리랜서 활용은 각각 5.1%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행은 모든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품과 시각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자체 수행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디자인업체의 규모 영세성을 고려할 때 수주받은 디자인과제들이 다른 디자인분야와의 융복합 등 고도 복잡성을 요하는 과제보다 단순 과제 위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함께 영세할수록 재하청과 프리랜서 활용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낮은 디자인업체 역량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 용역 수행기간은 3개월 미만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20.2%로 6개월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개월 미만은 기타 전문디자인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게 나타난 반면, 기타 전문디자인업의 경우 1년 이상 비율에서 35.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처럼 높은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용역기간은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용역기간의 장기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역시 업체의 디자인역량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용역 건당 평균계약규모도 1,000만원 미만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5.2%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인테리어와 기타 전문디자인업의 경우 용역 건당 평균 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기간과 금액, 용역수준, 업체역량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업체의 매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업체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계약체결방식으로는 수의계약 방식이 60.5%로 높게 나타났지만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도 38.3%로 높게 나타나 디자인시장이 개방형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은 인테리어와 기타 전문 디자인업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개방형 경쟁구조가 저가발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디자인용역과제 수주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전문디자인업계의 수주구조는 주로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주 거래대상에 대한 매출비중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어느 정도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체수행 위주의 용역계약수행방식과 3개월 미만의 짧은 용역기간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의 용역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단순 과제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급측면에서 디자인업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주거래 대상인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디자인 투자 활성화 등 수요측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전문디자인업 2/4분기 경기지수(D-BSI)는 74.2 → 전분기 대비 14.8p, 전년 동분기 대비 11.7p 상승

■ 업종별

제품, 시각, 인테리어, 기타전문디자인업 전 업종 전분기 대비 10p이상 상승

특히, 제품디자인업이 83.5p로 전분기 대비 26.9p, 전년 동분기 대비 17.0p 큰 폭으로 상승

■ 지역별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 전분기 대비 경기지수 상승

특히, 대경권이 30.9p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호남권과 기타권(강원/제주)이 각각 83.9p, 88.9p로 가장 높음

■ 경영부문별

매출, 채상성, 인력사정, 자금사정 모든 부문의 경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특히, 매출지수가 전분기 대비 22.5p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인력사정지수가 93.3p로 가장 높음

■ 2분기 경기 호전 이유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증가’ (31.3%)

■ 2분기 경기 악화 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62.7%)

2. 2013년 3/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전문디자인업 3/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3.9p → 전분기 대비 0.2p, 전년 동분기 대비 24.2p 상승

■ 업종별

제품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이 각각 127.0p, 104.9p로 기준치 100p을 상회

특히, 제품디자인업의 경우 전분기 대비 17.4p 상승

■ 지역별

강원/제주 지역(82.0p)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경기지수가 기준치 100p를 넘겼고 대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지수 상승

■ 경영부문별

매출 및 인력사정 지수가 각각 104.2p, 102.5p로 높게 나타남. 전 부문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 혹은 하락을 보였으나, 전년 동분기 대비 인력사정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모두 20p이상 큰 폭으로 상승

■ 3분기 경기 전망 호전 이유

‘신사업 발굴 계획/신규개발’ (23.4%), ‘시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주증가’ (22.1%)

■ 3분기 경기 전망 악화 이유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 (57.0%)

3. 디자인전문기업 영업현황

■ 주요 거래 대상

‘중소기업’ (39.4%), ‘공공기관’ (31.1%)

■ 주요 거래 대상 매출 비중

‘50% 이상’ (68.2%)

■ 주된 용역 수행 방식

‘자체수행’ (91.0%)

■ 평균 용역 수행 기간

‘3개월 미만’ (59.7%),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2%)

■ 계약 체결 방식

‘수의 계약 방식’ (60.5%),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 (38.3%)

■ 용역 건당 평균 계약 금액

‘1000만원 미만’ (35.8%),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5.2%)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불변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2 1/4분기	2012 2/4분기	2012 3/4분기	2012 4/4분기	2013 1/4분기					
					1월	2월	3월	평균	4월*	5월*
전문디자인업	95.5	107.2	87.9	111.0	71.1	70.8	121.7	87.9	99.9	109.7
서비스업전체	102.1	104.9	104.7	107.6	101.8	100.3	106.6	102.9	105.3	107.6

*4,5월은 잠정치

요약

II. 2013년 2/4분기 현황 및 3/4분기 전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1. 디자인 업계 이슈

- 제주 한라수, 만도 전기자전거 풋루스, 포스코LED, 블루버드 등 제조업계,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_ IF & Red dot & IDEA 석권. 디자인업계에 긍정적 영향
- 국내 중소 가구업체 디자인벤처스, 중소 그릇업체 이도, 주방용품업체 네오플랩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유명외국브랜드 제치고 백화점 점령, 해외에도 진출
- 6개 디자인기업(디자인넥스트, 리드디자인, 서울디자인컨설팅, 엠아이디자인, 엔에스 디자인, 구디스) 중국 최대 규모 박람회 칸톤페어(Canton Fair)에 참가, 중국시장 진출
- 감성품질디자인센터, 제품디자인 원스톱 서비스 진행, 정량적 디자인 평가항목을 만들어 디자인 표준화 추진

2. 디자인 정책 이슈

- 산업부 디자인기업역량강화 사업,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맞춤형 지원
- 산업부-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13년 중소 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실시
- 산업부,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취업을 확대하고 융합형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3년 디자인인력양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마련
- 한국디자인진흥원, 1인 또는 소규모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 '디자이너마을(village.designdb.com)' 개설
- 산업부,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소액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돈 10만원으로 창업하기' 프로젝트 추진

III. 부록1

0. 영국 디자인산업의 성장 비결

IV. 부록2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2. 2013년 2/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4. 산업일반 통계자료